

작년 초중고 사교육비 27.5조... 학생 1인당 월평균 60만원

교육부, 사교육비 조사결과 발표
전년대비 총액·참여율 줄어들어
참여 학생 1인당 지출은 늘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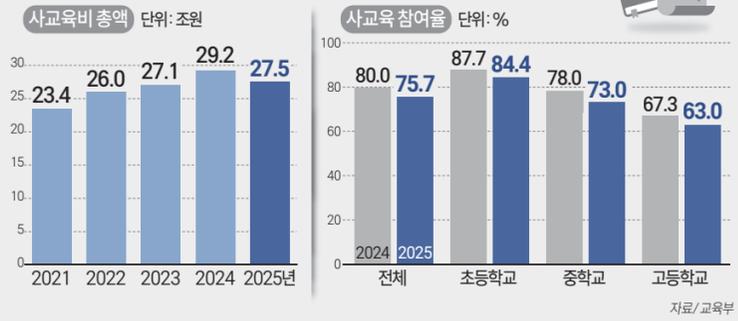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는 총액 기준 27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7% 줄며 팽창세가 꺾였지만,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지출은 60만4000원으로 2.0% 늘어나 부담이 참여층에 더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000억원으로 전년도 29조2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 줄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2조2000억원 ▲중학교 7조6000억원 ▲고등학교 7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초등학교 7.9%, 중학교 3.2%, 고등학교 4.3% 각각 감소했다.

사교육 참여율도 75.7%로 1년 전보다 4.3%p 하락했고, 주당 참여시간 역시 7.1시간으로 0.4시간 줄었다. 학교급별 참여율은 ▲초등학교 84.4% ▲중학교

초·중·고 사교육비 현황



73.0% ▲고등학교 63.0%로, 주당 초등학교는 7.4시간 사교육에 참여, ▲중학교 7.2시간 ▲고등학교 6.6시간으로 집계됐다. 전체 학생 수가 502만명으로 전년보다 12만명(2.3%) 줄어든 점까지 고려하면 올해 통계는 사교육 시장의 외형이 확실히 축소된 흐름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45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3.5% 감소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43만3000원 ▲중학교 46만1000원 ▲고등학교 49만9000원으로 모두 줄었다.

하지만 실제로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

만 놓고 보면 흐름은 다르다.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2.0%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51만2000원 ▲중학교 63만2000원 ▲고등학교 79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1.7% ▲중학교 0.6% ▲고등학교 2.6% 모두 증가했다.

특히 학년별로는 전체학생 기준 고등학교 1학년이 53만4000원, 참여학생 기준도 고등학교 1학년이 80만6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초등학교는 전체학생 기준 5학년 47만2000원, 참여학생 기준 6학년 58만3000원, 중학교는 전체학생 기준 2

학년 46만6000원, 참여학생 기준 3학년 64만5000원으로 각각 가장 많았다.

과목별로는 영어와 수학 풀림이 뚜렷했다. 일반교과 전체학생 기준 월평균 사교육비는 ▲영어 13만1000원 ▲수학 12만8000원 ▲국어 3만9000원 ▲사회·과학 1만9000원 순이었다. 참여학생 기준으로도 ▲영어 28만1000원 ▲수학 27만1000원 ▲국어 18만5000원 ▲사회·과학 16만6000원 순으로 높았다.

전체학생 기준 일반교과 사교육비는 33만6000원으로 6.0% 감소했지만, 참여학생 기준은 59만5000원으로 7.9% 증가했다. 참여유형별로는 일반교과는 학원 수강이 전체학생 기준 26만7000원, 참여학생 기준 56만원으로 가장 높고, 개인 과외(전체학생 3만1000원·참여학생 45만2000원), 그룹과외(1만8000원·32만5000원)이 뒤를 이었다.

총액 감소에도 격차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다. 가구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구간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2000원으로, 300만원 미만 구간의 19만2000원보다 47만원 많았다. 참여율

도 800만원 이상은 84.9%, 300만원 미만은 52.8%로 32.1%p 차이를 보였다.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별로는 맞벌이 가구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가 48만6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아버지 외벌이 44만4000원, 어머니 외벌이 30만7000원 순이었다. 참여율 역시 맞벌이 가구가 78.0%로 가장 높았다.

고등학생 성적 구간별로는 상위 10% 이내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1000원, 하위 20% 이내는 32만6000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고, 참여율도 각각 73.8%, 50.1%였다.

지역별로는 전체학생과 참여학생 모두 서울의 사교육비가 가장 높았다. 지출 구간별 분포에서도 월평균 70만~100만원 미만 비중이 13.9%로 가장 컸지만, 서울은 '100만원 이상' 비중이 가장 높아 지역별 편차도 확인됐다.

일반교과 수강 목적은 학교수업 보충이 49.5%로 가장 높았고, ▲선행학습 22.7% ▲진학준비 16.2%가 뒤를 이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서울시, 노후도 조건 등 정비사업 규제 개선

역세권 사업제한 대상지 확대
“삶의 질을 높이는 규제혁신 추진”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문턱은 낮추고 시민들의 알권리 증진,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민 체감형 규제 개선 4건을 본격 추진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상반기 중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해 사업제한 대상지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3가지 요건 가운데 '과소 필지 150㎡ 미만 필지 비율 40% 이상 또는 2층 이하 건축물 비율 50% 이상'과 '10년 이내 신축건축물 비율 15% 이상인 지역 제외' 조건은 삭제되고, 앞으로는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60% 이상' 기준만 적용된다.



서울시청 전경.

이를 통해 그동안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으나 기준상 노후도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던 대상지들에 대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면서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민간투자 건축물과 관련한 임대차 피해를 막고자 건축물대장상

'기부채납 사항'을 기재하도록 조치(규제철폐 153호)한 데 이어, 해당 규제 개선을 지하시설 등 비건축물 분야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기부채납 관련 정보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도 등재함으로써 기존 제도가 미치지 못했던 규제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소한다.

시는 연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토지에 대한 중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협약에 수 관련 공모 기간 당초 35일에서 60일로 연장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기간 '최근 3년 이상'으로 단축(기준 4년)한다.

/이현진 기자

중앙대 'TeX-Corps' 사업 추진

중앙대학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이 주관하는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TeX-Corps)'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중앙대는 향후 5년간 총 75억원(연간 약 15억원) 규모의 기술 창업 탐색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된다.

중앙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술 기반 창업팀 발굴을 확대하고 연구성과의 사업화와 창업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창업탐색 단계부터 후속 사업화, 투자 연계, 기술이전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현진 기자

'유아고시' 사라진다... 교육부, 법적근거 마련

학원 설립·운영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의 선발성 시험과 수준별 배정 목적의 평가가 법으로 금지된다.

교육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학원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편성을 목적으로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데 있다.

다만 모든 진단 행위가 일률적으로 금

지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은 유아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수업 운영과 아동 발달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진단은 가능하도록 하되, 등록 전 선발이나 서류화를 위한 평가는 막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선발과 서류화를 위한 시험을 규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불필요한 조기 경쟁을 줄이고,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 '2040 평택 도시기본계획' 승인

반도체 인프라 확대, 항만물류기능 강화

경기도가 반도체 산업 확대와 평택항 물류 기능 강화 등 변화하는 도시 여건을 반영해 '2040년 평택 도시기본계획'을 11일 최종 승인했다.

도시기본계획은 향후 20년간 도시의 성장 방향과 관리 전략을 제시하는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과 주거·상업·공업 등 토지 이용, 인구·산업·환경·방재 등 장기적인 도시 공간 구조와 발전 방향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에서 2040년 목표 인구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유입 인구와 통계청 인구추계,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현재 65만 명에서 105만 4천 명으로 설정했다.

토지 이용 계획은 평택시 전체 면적 487.806㎢ 가운데 29.653㎢를 시가화에 전용지로 지정하고, 기존 개발지 104.516㎢는 시가화용지, 353.637㎢는 보존용지로 확정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 등록금 지원

7.8억 투입... 내달 19일까지 신청 접수

성남시가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셋째 이상 대학생에게 학기당 최대 100만원(연 최대 20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사업비 7억8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오는 4월 19일까지 1학기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30세 미만인 셋째 이상·미혼인 대학생이다. 거주 요건은 공고일(3월 10일) 현재 학생과 보호자(1명 이상) 모두 성남시에

도시공간구조는 신규 개발사업과 광역교통망 확충에 대응하고 동·서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도심 3지역 중심' 체계로 개편했다. 생활권은 동부와 서부 두 권역으로 구분해 동부는 반도체 특화단지과 산·학·연 클러스터 중심의 미래산업 거점으로, 서부는 친환경 수소 에너지 특화단지와 항만·산업도시 조성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국가철도망 계획 등을 반영해 도시 전체를 연결하는 순환형 도로망과 권역별 순환도로 체계를 구축하고, 공원·녹지와 생활 SOC 확충을 통해 시민 생활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김희성은 "이번 계획 승인으로 철도역 개통에 따른 역세권 복합개발과 반도체 산업단지, 평택항 물류 기능을 연계해 평택이 수도권 남부 핵심 산업·물류 거점 도시로 성장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성남(경기)=유진재 기자 yujin@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지급일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학업을 위해 대학생 본인이 재학 중인 대학교 소재지 인근으로 전입해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는, 공고일 직전 주소지 주민등록이 성남시에 1년 이상돼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국가장학금·교내장학금·부모 직장 장학금 등 다른 기관에서 받은 장학금 등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 등록금' 범위에서 지급되며, 학기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